

<b>보도</b>	<b>2026.6.15.(월) 조간</b>	<b>배포</b>	2026.6.12.(금)
<b>담당부서</b>	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리스크감독팀	<b>책임자</b>	국 장 이 석 (02-3145-7120)
		<b>담당자</b>	팀 장 노경록 (02-3145-7130)

## 금융감독원장,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현장 점검

- '금감원 내부 보안 훈련' 주관에 이어 '금융권 모의 훈련' 직접 점검 -
- 금융회사 경영진의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독려 -

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월 12일(금) 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관제센터 (죽전 소재)를 방문하여 「2026년 상반기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\*」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.

\* 공격 일시와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화이트해커가 불시에 공격하여 금융회사의 해킹 탐지·방어 능력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

+ '26년에는 지난 4월 7일 발표한 '사전예방적 디지털리스크 감독방안'에 따라 공격유형, 훈련 대상 (전년 20개 대비 40개사로 확대) 및 횟수(상반기 2회)를 대폭 확대하여 5월부터 6월까지 훈련 진행 중

- 이번 현장 점검은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7일 금융감독원 내부의 「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 대응 모의훈련」을 주관한 데 이어, 금융회사 대상의 「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」을 직접 점검함으로써
- 금융권 전반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보안 역량 강화에 앞장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.

□ 이찬진 원장은 이번 훈련 현장에서 금융권 보안관제 현황과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,

- DDoS, 서버 해킹, 모의 침투 훈련 등을 통해 주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 프로세스와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
- 이찬진 원장은 “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은 실제 사고 발생 전 금융회사의 방어체계와 사고 발생 시 복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.”고 하면서,
  - “금융회사는 사이버위협 대응태세를 지속 점검·개선하는 등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,
  -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핵심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.”고 강조하였습니다.
- 특히, “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은 금융회사의 안정적 영업과 소비자 신뢰에 직결되는 핵심 경영 리스크”라며,
  - “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앞장서서 사고 대응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, 충분한 보안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예산·인력·조직 등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.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“미토스 등 고성능 AI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 수법이 빠르게 발전하고, 숨어있던 보안상 취약점들이 쉽게 드러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보안 패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”며,
  - “보안 취약점 점검·보완, 보안 패치 우선 순위 설정, 비상대응계획 점검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.”고 주문하였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금융회사별 취약점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, 공통 취약점과 개선 필요사항은 유의사항으로 배포하여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위협 대응태세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
  - 이와 함께 금융권 버그바운티, IT자산식별·관리강화 및 취약점 분석·평가 내실화 등 지난 4월 7일 발표한 ‘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’을 실효성 있게 지속 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